



캠핑

산기슭의 별장 텐트생활

‘도시생활에 있어서 캠핑은
즐거운 시간이다.
한가지씩 모아둔 등산장비를
챙겨 운치있는 산기슭에
직접 별장을 지어보자,

1. 장소 선택

제일 중요한 것이 장소의 선택이다. 모래땅이 가장 적합하지만 여의치 못할 때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선정한다.

첫째, 위험이 없는 평탄한 장소 둘째, 물터나 샘이있는 장소 셋째, 습하지 않으며 배수가 잘되는 장소(습기가 많으면 독충들이나 해충들이 많고 불결하다.) 넷째,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장소등이다. 산촌은 여름 소나기가 특히 많은 곳이므로 물이 잘 빠져 나갈 수 있는 곳을 택하며 주위에 배수로를 만든다.

2. 텐트 설치

텐트의 설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가 지기전에 작업을 끝낸다. 요철이 있으면 잘 다듬는다. 입구는 바람의 방향을 참고로 한다. 이는 바람을 바로 맞지않는 곳이 좋기 때문이다. 네 구석을 먼저 고정시키고 사이트 바닥을 만져보아 등이 배기는 것이 있으면 집어낸다. 소나기와 햇볕에 대비한 텐트 플라이를 설치한다.

본격적인 행락철이다.
비용을 많이 들여 멀리 간다고
좋을까?
맑은 공기, 새소리가 있는 산기슭에
직접 집을 짓고
즐거운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
본다면 어떨까?
텐트와 카메라 사용법에 대해
알아본다.

플라이가 없을 때는 텐트보다 좀 더 큰 비닐을 준비해도 좋겠다.

3. 소도구 정리

텐트의 규모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배낭은 텐트 구석에 두고 조명 준비를 한다. 이때 비닐 시트를 바닥에 깔면 불쾌한 습기나 냉기를 막을 수 있다. 조명은 대부분 양초를 많이 써왔으나 최근에는 형광랜턴등이 나와 있어 편리하다. 부탄가스 램프도 많이 사용되는 조명기구중의 하나다. 이 램프의 약점은 등피가 깨지기 쉬운 점이나 많은 인원일때도 편리하고 실내를 충분히 밝혀주어 편리하다. 샌들이나 운동화가 준비되었으면 입구쪽에 가지런히 놓는다.

4. 취사 준비

공동 취사장이 아닐 경우라면 먼저 아궁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돌을 준비한다. 적당한 크기의 돌 3개를 구해 이것을 3군대에 놓으면 남비를 올려놓고 불을 뿜 수 있는 준비가 된다. 바닥의 흙이 습기차 있을 때에는 잘 건조된 자갈을 바닥에 깔아놓고 불을 뿜다. 튼튼한 면장갑도 필수품이다. 버너 사용시는 충분한 연료준비가 중요하다. 버너연료는 석유, 백 개솔린, 알코올등이 있으나 2개 이상의 버너를 사용할 경우라면 같은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는 버너를 준비한다. 텐트내에서 취사시에는 받침대를 준비하는 것도 좋다. 코펠은 사람의 수에 의해 크기를 결정하며 수통도 있어서는 안된다.

5. 식사

식은 영양가가 많으면서도 분량이 적은 것으로 한다. 대부분 육류를 많이 먹는데 과식은 금물이다. 즉석 야외음식으로 바베큐가 좋다. 돼지고기, 쇠고기 등과 함께 닭도 많이 애식되고 있다. 인스턴트 식품은 가능한한 피하고 가끔적 날채소를 준비하도록 한다. 준비한 밀반찬의 관리도 중요하다. 채소등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둔다든가 고기는 간장에 담구어 두는등 지혜가 필요하다.

6. 취침

잠자리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닥의 평평함이다. 적당한 매트및 슬리핑 백의 준비는 편안함을 준다. 슬리핑 백은 저지대일 경우 화학섬유면 충분하다. 베게는 너무 딱딱하지 않은 것을 준비하며 슬리핑 백 속에서는 옷을 얇게 입는 것이 피로를 쉽게 푸는 방법이 된다.

사진촬영의 9가지 테크닉

‘칼라사진을 촬영하는 도중에 부딪치는 몇가지 어려운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 당신은 비로소 효과적이고 흥미로운 사진을 만들게 될 것이다,’

1. 하이 콘트라스트

밝고 강한 직사광 아래 후면과 측면에서 빛을받는 피사체의 콘트라스트를 소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원래 칼라사진 촬영의 이상적인 조명비율은 3 : 1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10 : 1에 이르는 조명 상태일때는 칼라가 깨어지기 마련. 따라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또는 그림자 부분의 조명비율의 차이를 감소시키고 세부 모양의 표현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림자 부분을 전자 후렛쉬등을 사용하여 보조광 역할이 되도록 비추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인물이 대상일때 획기적인